

## 성경으로 돌아가라 (코스타리카 빠블로 박 선교사)

낮선 선교지에 와서 종종 길을 잃을 때가 있었다. 그려진 약도를 가지고 주의 깊게 길을 살피면서 가도 어느 순간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었다. 코스타리카만큼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나라가 또 있을까 싶다. 어느 건물에서 몇백미터 어느 방향으로... 이런 식이다. 길을 잃을 함정이 너무도 많다. 길이 헛갈리기 시작하면 보통은 주변 사람들에게 길을 묻기 마련이다. 그런데 문제는 의외로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정확히 길을 알지 못해도, 여간해서는 모른다는 말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잘 몰라도 대충 어림잡아 어디로 가라고 알려준다. 사람들이 알려 주는 방향대로 운전대를 돌렸다가 전혀 엉뚱한 길로 가거나 매미처럼 제자리를 빙빙 돌기가 일수였다. 쉽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대로 현재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쯤인가 약도를 통해 다시 확인하고 약도가 안내하는 대로 길을 찾아내는 것이 그래도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었다. 물론 약도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애를 먹는 적도 있긴 하다. 이제는 경험이 많이 쌓여서인지 낮선 곳을 가도 약도만 잘 준비해 가면 예전보다는 한결 수월하게 길을 찾아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고생을 훨씬 덜하게 되어 다행이고 감사하다.

그런데 이런 낭패감은 비단 길을 잃었을 때만 느꼈던 것은 아니었다. 하루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으며 때때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고 고민하고 방황하던 때가 종종 있었다.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모든 것이 새로웠던 선교지에서의 삶 자체가 하루 하루 크나큰 도전이고 모험이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양들을 섬기는 일,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일, 맨주먹으로 시작하다시피 한 자립 역사를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는 일들 하나 하나가 낮선 곳에 홀로 버려진, 길 잃은 고아의 심정을 절절히 느끼게 해 주었다. 나보다 인생을 많이 살았고, 그래서 나보다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묻고 의지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꼭 그런 것도 아니었다. 여전히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도는 느낌이었다. 내 가는 인생길을 안내해 주고 인도해 줄 약도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약도는 다름 아닌 성경 말씀이었다. 요한복음 14:6 절은 말씀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한다. 그것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였다. 때로 안갯 속을 거니는 것 같이 막막하고, 때로 주위 사방이 다 어둡고 캄캄한 것 같은 때에도 나침반이 되어 방향을 알려 주고, 등대가 되어 빛을 비추어 주고, 약도가 되어 나아갈 길을 보여 주었던 성경 말씀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다.

선교지에 온지 만 5 년이 지난 후, 모자란 성경 실력, 부족한 언어 실력에 도전하여 자립적인 스페인어 메시지 쓰기를 시작했다. 매주 자립적인 메시지를 쓰기 위해 언제 어딜 가나 성경 본문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기를 반복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나와 양들의 죄악이 보이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되어 눈물이 흐르고 또 흘렀다. 나에게서 멀리 계시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 바로 성경 말씀 속에 계셨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양식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었다. 메시지 전할 때마다 눈동자

초점이 흐리고 졸려 보였던 동역자의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다. 5년간 주일 메시지에 한번도 은혜 받은 적이 없다고 했던 동역자의 입에서 매주 은혜 받았다는 고백이 나왔다. 힘을 얻어 이제는 말씀 공부 자료와 노트를 새로 만들기 시작했다. 초신자용 12 스텝, 제자 훈련용 12 스텝 문제지와 노트를 만들어 선교사들과 양들을 섬기니, 먼저 선교사들이 성경 선생으로 준비되고 양들이 분명한 소원과 목표 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수양회 가운데 12 스텝 공부를 끝낸 양들이 준비된 심령으로 참석하고, 말씀을 받아 진실되게 회개 소감을 쓰고, 눈물로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성령의 역사가 드디어 영적 황무지와 같던 코스타리카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했다.

점차로 성경 말씀은 성경 공부와 주일 메시지 준비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님을 배우게 되었다. 머리를 깎으실 때도, 국을 끓으실 때도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시는지 비결을 물으면 '성경에 보면...' 하시며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을 흉내내기 시작했다. 양들을 도울 때도, 자녀들을 키울 때도, 동역자와 갈등을 풀어야 할 때도, 바이어(buyer)를 만날 때도, 집안 청소할 때도, 운전할 때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 direction 을 얻고 길을 안내 받으려 애썼다. 어느 날 동역자가 물었다. 살면서 이런 저런 문제가 실재 없이 터지는데, 어떻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 답을 가지고 있냐고... 사실 나는 답이 없었고, 지금도 없다. 아마도 내가 답이 없을 때 성경 말씀을 붙들고 의지한 것이 나에게 답을 주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지난 2011년에는 UBF 개척 50 주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파송 받은 경성 센터에서 제자 수양회가 있었다. 네 강으로 진행된 느헤미야 강의 중 3 강(8-10 장) 강의를 맡게 되었다. 강사가 된 소식을 미리 듣고 가긴 했지만 실제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묵상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에 도착한 후였다. 3 주가 채 안 되는 짧은 일정 동안 개척 50 주년 감사제와 목자, 선교사 세미나 일정을 소화하고 둘째 다투의 사시 수술까지 진행해야 했다. 오랫동안 뵈지 못했던 부모님들 뵈고 인사드리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메시지를 준비하기 위해 허락된 시간은 주로 밤이었다.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느헤미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며 메시지를 준비해 나갔다. 아직도 부족한 영적 안목과 육신의 피곤으로 인해 말씀을 소화하기가 버거웠다. 메시지가 막힐 때마다 고아와 같은 심정으로 성령께 묻고 배우며 결국 메시지를 완성하고 강의를 섬겼다. 얼마나 말씀이 심령에 강하게 부딪혀 오는지 그때까지 9년간의 선교지에서의 삶이 이 한 메시지를 섬기라고 나를 준비시켜 주신 기간인 것만 같았다. 성경 말씀 속에서 죄악에서 떠나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고 위대한 결단을 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성경 공부와 역사 공부를 통해 신앙의 본질 곧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을 하는 그들을 보여 주시며, 하나님은 세속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로부터 우리를 순수케 하고 성결케 하는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음을 가르쳐 주셨다. 세상이 갈수록 복잡해 보인다. 그러나 실상 본질은 단순하다. 알아야 할 것들도 많아 보인다. 그러나 하나만 잘 알아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솟구쳐도, 때로 내 인생이 망할 것처럼 보여도, 내 주변에 그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은혜와 비전이 충만해서 선교지에 돌아와 겨울 수양회를 섬겼다. 그간 네번에 걸친 겨울 수양회 중 가장 많은 9 명의 현지 양들이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에르네스토 형제는 첫 현지인 강사로 세움 받아 아주

힘있고 은혜롭게 메시지를 섬겼다. 드디어 코스타리카에도 양들이 몰려올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을 굳이 마음 속에서 떠나 보내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1년 후 개척 10년째 겨울 수양회에 참석한 현지 양들 숫자는 5명으로 반토막, 그리고 이 글을 쓰는 현재는 올해 피싱되어 처음 수양회에 참석했던 자매 양 한 사람만이 중심을 지키고 성경을 공부하고 소감을 쓰며 성경 선생으로 살고자 하는 비전을 키우고 있다. 떠나간 양들의 나름의 이유는 다양했다. 바쁘고 시간이 안 나서, 찬양이 약해서, 너무 복음만 강조해서, 방언 기도를 마음대로 못 하게 해서, 연애하고 싶어서 등등... 그러나 공통 분모는 분명히 있었다. 성경 말씀대로 못 살겠다는 것이었다. 성경 말씀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자라온 문화, 들어온 메시지를 되새겨 보니 당연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넘쳐난다.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고 축복과 성공만 외치는 설교가 범람한다. 그들의 귀에는 회개를 강조하고 복음을 반복하여 전하는 우리 모임이 이상했고, 우리 모임의 메시지가 낯설었다. 사람들은 길을 잘 몰라도 약도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도 애써 온 길을 되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간혹 주위 사람들에게 길을 묻기도 한다. 가는 길이 틀렸다고, 온 길로 다시 돌아가서 다른 길로 가라고 하면 기분 상해한다. 잘 가고 있다고, 옳은 길을 선택했다고, 이대로 죽 가기만 하면 된다고,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한다. 길을 안내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심리를 잘 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축복받는다고, 성공한다고, 약도대로 길을 안내하지 않고, 가고 싶은 길을 가도록 부추인다. 그렇게 다들 넓은 길로 간다. 생명을 얻는 길은 좁고 험악한데, 멸망에 이르는 넓은 길로...

또 다시 삶의 기로에 서 있다. 성경 말씀대로 길을 안내할 것인가, 가고 싶은 길을 가게 내버려 둘 것인가... 언젠가 에르네스토 형제가 이런 말을 했다. 양들 많이 모으는 거 어렵지 않다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하면 알아서 몰려온다고... 그러나 성경대로 전하면 양들 많이 모으는 것은 포기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주던 그도 지금은 전혀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 솔직한 바램을 표현하면 정말 양들이 많이 몰려왔으면 좋겠다. 내가 전하는 메시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렁찬 목소리를 정말 듣고 싶다. 그러나 그렇다고 성경 말씀을 변질시킬 수는 없다. 양들을 멸망길로 인도하는 삿군 목자가 될 수는 없다. 비난받고 무시받고 소외당해도 나는 또 성경에서 길을 안내 받고 성경으로 길을 안내해야 한다.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은 소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유언적인 메시지를 주셨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이요, 성경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성경을 접하고 얼마나 많이 성경 말씀을 듣는가? 그러나 정말 명확하게 말씀을 해석하고 깨닫기 전까지는 아직 성경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말씀이 나를 붙들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 전까지는 아직 성경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 내가 정말 내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기 전까지는 아직 성경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의 본질이다.